

마을 가꾸는 '달인' 있어 살맛 나는 세상

클로버 봉사단, 마을 활동가 정태영씨, 김재우·김명자 부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3개 부문 수상자 최종 선정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18 더불어 나누는 마을만들기 '달인'을 찾아라'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협의회는 18일 "동네 정화와 자원 분리 활동에 힘써온 서구 치평동 '클로버 봉사단'을 '자원순환 부문' 달인, 북구 평촌마을에서 생태문화 조성과 갈등 해결에 앞장서 온 마을 활동가 정태영씨, 광산구 하남동 주공 1단지 아파트에서 저소득가구의 고장난 각종살림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이

웃을 보살펴준 김재우·김명자 부부를 '우리동네 으뜸이 부문' 달인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평동 관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클로버 봉사단은 지난 7년동안 매월 한차례씩 동네 곳곳을 돌며 환경정화활동을 벌인 것은 물론 수거한 쓰레기를 각 아파트 단지로 가져가 분리수거를 실시해 자원재활용과 순환에 힘쓰고 있다.

정태영씨는 반딧불이의 복원과 마을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커뮤니티비즈

니스센터 유치 등으로 방문객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 국립공원 편입과 각종 갈등을 해결하는 마을 기획자로 활동해왔다.

김재우·김명자 부부는 저소득층과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만물수리센터를 주도로 운영하면서 배관과 설비, 전자기기 등 고장난 살림살이 무료 수리는 물론 어르신 돌보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협의회는 매년 공적자금 지원없이 자발적인 참여로 풀뿌리 마을가꾸기 운동을 벌이는 시민과 단체를 각 부문별 '달인'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오는 21일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 및 성과보

고회에서 수상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달인의 활동상을 자료집으로 제작해 홍보하고, 해당 '달인'의 노하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2019년도부터 운영한다.

협의회 김경일 사무총장은 "더불어 나누는 마을만들기 '달인'을 찾아라' 사업은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을 찾아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을 가꾸기에 기여한 일반시민, 각종단체, 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풀뿌리 마을만들기 운동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이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와 함께하는 광주복지협치 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복지재단 복지협치 분과 위원회 간담회

9개 위원회 40여명 참석 실천과제 공유·운영방향 논의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은 18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환경복지위원회와 함께하는 광주복지협치 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9개 분과위원회 분과장 및 간사, 환경복지위원회 김광판 의원, 나현 의원, 박미정 의원, 신수정 의원, 그리고 시 해당부서 행정분과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복지협치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9월에 구성·위촉된 9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복지실천과제를 공유하고 4개월간 활동 평가와 함께 2019년 운영방향에 논의했다.

지난 4개월간의 활동평가에서는 복지협치 조례가 제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단발성 형태가 아닌 지속가능한 논의의 구조가 구성되고 운영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행정분과위원의 현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적극적인 참여 권

장 분과 운영 활성화 과제로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2019년 분과활동 제안과제에 현재의 지도·점검과 평가시스템으로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질적 성장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복지현장의 성장과 발전, 당사자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선과 개발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복지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복지협치의 큰 힘이라며 민·관·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민간분과위원은 예산편성 시기에 복지영역별 우선과제 등 의견수렴 과정의 필요성, 현장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공동과제들은 2019년 1-2월 중 몇차례의 숙의과정을 거쳐 분과활동 공동과제로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협치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내년도 안전예산

올보다 13% 늘어난 3004억

광주시는 18일 "2019년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계획 192개 대책에 300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3% 늘어난 것이다.

안전관리계획은 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안전 환경 및 여건 등을 반영해 피해 현황 분석을 통한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계획과 세부추진대책 마련 등 재난 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미세먼지, 감염병 등 사회재난·안전사고 분야에 2천400억원,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분야에 429억원, 재난안전일반 분야에 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지난 14일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찾은 임택 청장 등 동구 공직자들이 어르신들의 전동휠체어를 소독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형 공동체 발전방안

오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광주시는 19일 '광주공동체 회복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한 '광주형 공동체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한다.

보고회는 이날 오후 4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연구모임 위원,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시·구 마을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 광주형 공동체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광주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대표성 있고 권한있는 주민자치회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분야 간 협업지원체계 실질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혁신모델사업 발굴 등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민친화·행정혁신...동구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

공직자 270명 복지시설 봉사활동

새해를 앞둔 민선 7기 동구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상명하달의 경직된 풍토에서 벗어나 공직자들이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각종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주민친화 행정을 펼치고 있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각 부서 공직자들은 지난 14일 결연을 맺은 지역 사회 복지시설 12곳에서 "Thanks Friday"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일회성 전시행사에서 벗어나 24개 부서 공직자 270여명이 매 분기별로 1년에 4번 빛고를중합사회복지관·

영아일시보호소 등에서 배식·청소·아이 돌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일 광주김치타운에서는 '공직자 사랑의 봉사활동'이 개최됐다. 40여명의 공직자들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0상자(560만원 상당)를 장애인 세대, 복지시설 등 100세대에 전달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혁신 아이디어 공모', '소태위생매립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 등도 행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다.

임택 청장은 지난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7급 이하 직원들과 구정 자유토론, 아이디어 제안 등 업무와 무관한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공감토크'를 진행 중이다.

또 구정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사업에 대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동구행정협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구정전 부구청장이 주재하고 있는 '혁신네트워크 회의'는 7-9급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생활과제를 발굴하고 행정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임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지산향토지리지' 1000부 발간

광주 북구청이 지산(芝山) 지역의 향토문화를 다룬 지리지를 발간했다.

광주 북구청은 18일 "옛 지산면 지역의 잊혀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보존·전승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 북구 지산향토지리지' 1000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산(芝山)'은 1932년 11월부터 1980년 3월까지의 현재 광주 북구 건국동, 일곡동, 양산동을 아우르는 지역의 옛 명칭이다. 지산향토지리지는 ▲제1편 지산의 환경 ▲제2편 역사 ▲제3편 성씨와 인물 ▲제4편 정치와 행정 ▲제5편 문화유산과 삶의 흔적 ▲제6편 경제와 사회 ▲제7편 동과 마을 유래 등을 내용으로 하는 2권으로 구성됐다.

북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약 3년여 기간 동안 지산향토지리지 추진위원회·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지리지를 발간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산의 역사와 문화는 격동기를 살아왔던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를 대변하는 만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마을의 역사·문화·자연의 보존과 공동체 문화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